

시민참여로 도시열섬 · 미세먼지 제로화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민참여 적극 권장키로

전주시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갈수록 나빠지는 대기질로 인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도심열섬 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발생도 줄여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가 끓고 있는 병인 도시열섬과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도시열섬 해소를 위해, 시는 기존 콘크리트 주차장을 걷어내고 잔디 등으로 바꾸는 주차장 포장기선과 건물옥 상鹭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시민참여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한, 건물옥상 및 외벽의 차열도료 시공으로 복사열을 차단하는 뮤루프 사업과 빗물자금통 설치, 덩굴식물을 이용한 '녹색커튼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한 흥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악화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에 따른 자체 경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보발령 기준도 강화해 대시민 흥보에 나서고 있다.

또, 대기환경 보전에 민전을 기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관리하거나 추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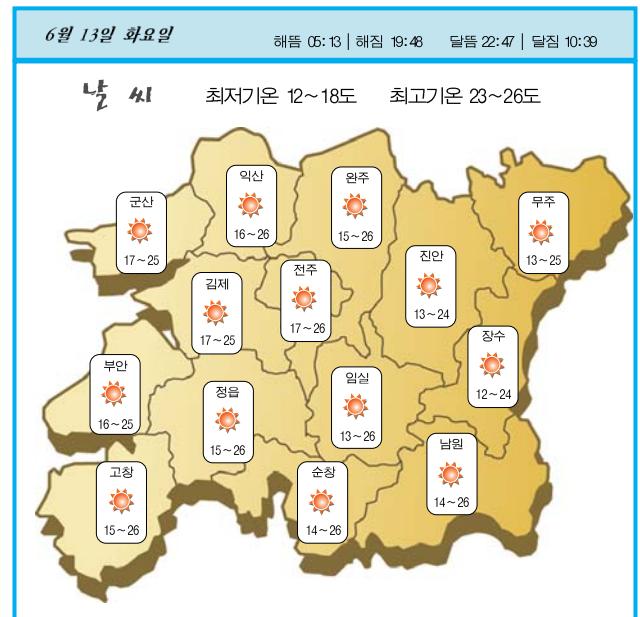
고 있는 대기배출업소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각종 도로 굴착공사 시 흙먼지 유출을 최소화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노면진공청소차량 운행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도시열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부서간 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 산하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업무가 궁극적으로 도시열섬 · 미세먼지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지욱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도시열섬의 원인 및 전주시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언재용 기자



전북대, 모바일 보물찾기 '지오캐싱' 모험 · 소통 잡았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드넓은 캠퍼스의 면면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시는 취지로 개최한 모바일 보물찾기 게임 '지오캐싱(Geocaching)'이 많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돼 12일 시상식을 가졌다.

지오캐싱(Geocaching)은 지구나 토지를 뜻하는 'Geo'와 은닉처 또는 귀중품을 의미하는 'Cache'의 합성어로, 미리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휴대폰과 GPS 좌표 등을 이용해 찾는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 보물찾기 게임이다.

전북대는 대학 캠퍼스 면면의 아름다움과 명품 블레길 등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모험심을 키워주기 위해 이번 대동제 기간 이 게임을 접목한 전북대민의 지오캐싱을 실시했다.

대학측은 나이도별로 대학 UI가 붙어 있는 55개의 캐시를 숨겼고 112명의 신청자들은 캠퍼스와 블레길 등을 찾아다니며 캐시를 모아 가장 많이 획득한 노은지 학생 등 26명에게 시상식을 통해 문화상품권이나 영화관람권, 식권 등의 소소한 선물을 증정해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전북대는 캠퍼스 곳곳뿐 아니라 가장 나이도가 높은 캐시를 총장실에 배치해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총장실을 찾아 언제든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드넓은 캠퍼스의 면면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시는 취지로 개최한 모바일 보물찾기 게임 '지오캐싱(Geocaching)'이 많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돼 12일 시상식을 가졌다.

캐시를 찾도록 했다.

이 총장 역시 총장실을 찾은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주면서 자연스레 담소를 나누는 등 그야말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열린 총장실 구현에 앞장섰다.

가장 많은 캐시를 찾은 노은지 학생(중어중문학과)은 "캐시를 찾았더니면서 캠퍼스 곳곳을 자

연스럽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특히 평소 어렵게만 느꼈던 총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학이 새롭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장실에서 첫 번째 캐시를 찾

은 성지한 학생(경북대 교류학생)은 "교류학생으로 전북대에서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즐거웠다"며 "전북대에서 하는 다양한 경험이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자신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지역 현장점검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부지매입 · 청년상상놀이터 구축 등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12일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부지매입,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 전통한지 제조시설 조성 등 공유재산 관리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청년 창업 ·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전북도가 추진 중인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사항을 청취하고 부지 제공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또한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사업과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부지 매입 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오평근 위원장은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와 청년상상놀이터 조성을 통해 청년 창업 활동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재용 기자

에디오피아 주지사 · 시장대표단, 완산구 방문

지적행정 ·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벤치마킹

에디오피아 오로마이아주 주지사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한 지적관련 민원서류 전국 발급서비스와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완산구 관계자는 "에디오피아 오로마이아주 토지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양 도시의 우호교류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재용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

Healing 여행!

장수는 심심계곡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발길 닿는 곳곳이 관광휴양지이며, 고랑 고랑 먹거리마다 청정장수가 주는 선물로 가득합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NAVER

장수물 검색

